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마태복음 2:1 -11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신 날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니고 진정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뜻 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거룩한 손으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써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길을 가던 중에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걸인에게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걸인 앞으로 다가갔으나, 마침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전도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는 손을 내밀어 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죄송합니다. 마침 나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군요. 그 대신, 추위로 인하여 차가워진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 걸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어떤 사랑보다 더욱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비록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지만, 그 거지도 엄연히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돈이나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인간의 따뜻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헛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햇볕이 있는 양지가 있는데도, 굳이 어둡고 추운 그늘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태양은 조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수많은 세월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인류를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랑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갔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당시에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신 까닭에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건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왕과 그 일당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 예수님을 뵈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반응이 각기 서로 달랐습니다. 헤롯왕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면서 불안해했다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왕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하고 물었으니, 헤롯이 것처럼 걱정할 만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헤롯왕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높은 지위 때문에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왕권은 로마정부가 부여해준 것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는 허수아비 왕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진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지위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왕의 비극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그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간 다음, 헤롯왕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언자 미가가 기록한 말씀을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역시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도 또한 별로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그들의 편만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은 반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이 예수님 때문에 위태롭게 되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아쉬운 것 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산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혹,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더라도,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잠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다가는 영원히 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묵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아기 예수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 어느 정도 대충은 알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것처럼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으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이며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늘의 진리를 땅에 파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는 비밀이 성경말씀 가운데 있건만, 그 성경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탄생의 비밀을 밝히 알고, 믿음의 길을 확신을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2007년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을 해마다 있는 절기로만 지내고 말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탄생의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예수 탄생의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면, 우리는 결코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 자신은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탄생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